칼 럼 김윤호 논설위원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부동산이 돈 버는 시대는 언제 끝나려나

이게 나라냐. 이게 민주주의냐. 군사독재보다 더한다 등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말들이 여기 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신문 사설에서도 '광풍(狂風)이 부는 나라' 라는 타이틀이 보이고 있다. 광풍은 글자 그대로 미친 바람이다. 미친 바람이 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미쳐 있거나 국가 사회가 상식과 이성, 법과 순리가 통하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이다.

먹는 음식이 맛이 가서 쉬어서 냄새가 나면 내다 버리면 된다. 그러나 사람이나 사회가 병 들고 쉬어 버리면 그것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려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쉰 음식처럼 쉽게 버릴 수도 없고, 치료와 치유에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 돈과 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3법이 300석 의석 가운데 176석의 더불어민주당이 103석의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速戰速決)에 야당은 수의 열세에 밀려서 속수무책(束手無策)을 탄식하고 있다. 국민이 그렇게 뽑아주었는데, 한탄하고 자책한들 어쩌겠는가. 열린민주당 의석을 합하면 180석으로 헌법 개정을 빼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공룡 여당이다.

아파트, 주택, 연립 등 집값과 땅값 폭등으로 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기 집 없는 대부분의 서민들은 한숨과 한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조건이 의식주(衣食住)이다. 의식주에서 입는 옷(衣)은 기본적으로 충족되었다고 본다. 문제는 먹을거리(食)와 살 집(住)이다. 상수도 식수에서 유충(幼蟲)이 나온다거나, 방사능 오염식품, 매연과 황사 등으로 오염된 공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관하여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인간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거처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 거처가 단독주택이 되었건, 연립주택이 되었건, 아파트가 되었건, 농어촌의 초가 삼간이나 스레트 지붕 주택이거나, 경관 좋은 호숫가의 그림같은 별장이 되었건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길 위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노숙자도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하고 몸을 누일 수 있는 지하도나 동굴, 움막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집이 언제부터 왜 이렇게도 일반 서민들은 엄두를 못내게 비싼 가격이 되었을까.

전세(傳貰), 월세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전세, 월세집에 살아야 할 것인가. 은행 대출을 받던, 무슨 수를 쓰던 집과 땅,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가격 상승으로 큰 차익을 번 사람들이 청와대 고위층,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 국회의원 등 사회 상류층으로 신분 상승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뭐라 해도 돈이 제일인 자본(資本)주의 사회이다.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절약해서 부(富)를 축적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다. 문제는 실제로 살 집이 아니면서 여러 채의 집과 서울 강남지역과 개발 예정 지역에 투기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더욱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 투기꾼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하고, 당정청(黨政靑) 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는 빨리 처분하라고 기한까지 정해서 지시 또는 명령해도 이행하지 않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청와대와 장차관 등 정부 부처에 많다. 국회에서도 국토교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상임위원회에 다주택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소속되어 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금력을 가지면 권력까지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면 금력까지 움켜쥐려고 부인까지 동원해서 온 가족이 한 통속이 되는 수가 많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 부정이 긍정을 누르고 올라섰다. 서울에서는 적폐정당이라고 몰아부쳤던 미래통합당이 촛불혁명을 계승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민심도 변하고 세상사도 무상(無常)하다. 사람이 영리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1년 후 일도 모르고 한 시간 후의 일도 모른다. 심지어 10분이나 5분 후의 일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다른 세상일도 완전히 딴 판이 될 것이다.

주택은 사유(私有)를 금지하고 모두 공유(公有)로 징수(徵收)해서 대한민국 모든 세대에게 집 한 채씩 무상으로 나누어주고 집 두 채 갖는 것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면 국민 여론은 어떻게 될까 하는 몽상(夢想)도 무더운 광풍 속에서 한 번 해본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언제나 종언(終焉)을 고(告)할 것인가. 취업 절망, 결혼 절망에 주택 절망까지 짊어진 2030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신의 한 수' 는 정녕 없는 것인가.

社 說

오만이 불러온 예견된 지지율 하락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창당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뒤집혔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6일 내놓은 주간집계를 보면 민주당은 35.6%, 통합당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소수점(0.8%포인트)대로 좁혀진 것은 이 기관 조사 이래 처음이다. 일간 조사에서는 한때 통합당(36.0%)이 민주당(34.3%)을 앞서기도 했다.

민주당은 핵심 지지기반이던 30대와 여성의 지지율이 급락했다. 반면 통합당은 중도층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 심리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결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역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 떨어진 44.5%였다. 4주째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고 있다.

여당에는 570여일 남은 20대 대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내일 대선이 있다면 야권 단일후보와 민주당 후보 중 누구를 찍겠느냐' 고 물었더니 42% 대 41%로 응답비가 나왔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46%로 야권 단일후보(36%)를 10%포인트 앞섰는데 역전된 것이다. 야당은 번듯하게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조차 없는 처지인데도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은 예견된 결과다. 대다수 국민보다 자신의 지지층만 바라보는 대통령, 다수당의 횡포를 일삼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욱 곤두박질할 것이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언제 뒤바뀔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 나아가 통합당도 자력이 아닌 반사이익에 따른 지지율 상승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진짜 신뢰받는 정치를 해야 한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기상예보	131
▲ 응급질병상담	1399	▲ 법률구조상담	132
▲ 미아 · 가출인 신고	182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여성 긴급전화	1366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전기고장 신고	123
▲ 응급의료센터	1399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 낙뢰 등에 대비하자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는 8월이다.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주로 8월에 찾아와 많은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 이다.

호우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시간 동안 80mm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50mm이상일 경우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요령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때는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일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한선근/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등록번호 광주 가 0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직통 (062) 228-2580
기사제보 (062) 222-258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 행 인·편 집 인 김 평 호
편 집 국 장 직 무 대 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